

통일 지향 제주문학 서설

- 자작 소설을 중심으로

오 성 찬*

1. 제주의 국토적 의미

통상 우리 국토의 길이를 3,000리라고 한다. 예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고 되어 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거리 삼천리, 우리 전 세대라고 할 소설가 김동인의 시대에는 서울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양의 친구 생각이 나면 열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평양기생들과도 한판 벌리곤 했었다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세대들은 그런 호방함을 누리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생전에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절실한 소망이요 기대이기도 하다.

연변, 집안, 만주의 그 넓은 별판을 우리 국토에서 떼어내어 일차적으로 구획을 축소시킨 책임은 아무래도 1392년 조선 건국의 주인공인 태조 이성계에게 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일본의 나라(奈良)현 아스카(明日香)마을에서는 1천6백년 전 고구려 시대에 평양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6백개의 별과 34개 별자리의 성수도를 그린 천문도가 발견되어 한-일 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후에 조선의 태조가 된 이성계는 하늘이 내린 새왕조라는 권위의 표상으로 고구려 천문도의 탁본을 바탕으로 다시 천문도를 그리게 했으며, 이것이 지금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보관 중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上列次分野之圖)라는 학자들의 주장이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으며, 일의 장본인인 태조의 심적 갈등과 고뇌도 읽게 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차례 국토를 잘라낸 것이 6.25 이후 1953년 7월의 휴전선에 의한 사실상의 국토 양단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속성이 자유 구가를 일차적 욕구로 삼고 무한히 뻗고 싶은 회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칠 때 우리는 지정학상 계속 좌절 속에 살아온 풀이며, 휴전 이후의 반동강으로 잘린 그 좌절의 아픔은 가히 무참하다 할 것이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국토의 최북단 백두산과 압록강까지 언제면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나마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소 1천 마리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갈 구상이 실현될 단계에 와 있으니 반세기 우리의 소망에도 서광이 비친다고 할 것인가.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거나 몇 년 전 한국소설가협회 주관으로 중국과 연변 일원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땅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도 오르고, 압록강에서

* 소설가

벧놀이를 할 수도 있었다. 압록강 벧놀이가 있던날 돌아오는 코스의 쉬는 참에 나는 한 동료 작가에게 “어쩌면 우리는 생전에 여기 다시 올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하고 그 지류로 내려가 짹짹 먹감기작전을 수행한 바 있었다. 나중 일행들간에 싫지않은 구설수에 올랐던 이 사건은 그러나 지금 고향을 잃고 방향의 시름에 잠겨있는 수백만 실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시원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통일 지향의 문학작품들

분단은 대개 이념의 문제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데올로기에 의한 혼란과 갈등은 시대를 불문하고 또 동서를 불문하고 되풀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념 문제를 주제나 소재로한 문학작품들은 수없이 많다. 한 예로 러시아 코사크족끼리의 내란을 다룬 미하일 솔로호프의 대하소설 <고요한 돈강>이 있다. 1965년에 “러시아 민중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국면을 창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적인 완전무결함을 보였다”는 찬사와 함께 노벨문학상이 수여된 이 소설은 코사크 지방의 적군세력과 백군세력의 틈새에서 서로 모략하고, 배신하며, 죽이고, 복수하는 피의 악순환 틈바구니에서 휴머니즘의 질식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돈강은 유구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고요한 돈강>이다. 동족상잔이 6.25를 치른 우리나라에서 술한 독자가 배출됐던 것도 그런 동류의식 탓이었지 않을까. 술한 살륙과 피해의 도가니를 거쳐서 그러나 이 작품 주인공 멜레코프 집안의 여주인 일리니치나가 자기 집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힌 마을 혁명위원장이며 사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의 미시카를 용서하는 대목은 이 작품중 화해의 상징 대목이며 압권이기도 하다.

저녁 때 일리니치나는 모두를 식탁에 부르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다. 그리고 두나치카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불러 와라. 저녁을 먹게 해야지...”

미시카는 성호를 긋지도 않고 지친 듯이 등을 구부리고는 식탁에 앉았다. 땀이 마른 자국이 지저분한 줄을 그어놓은 누런 얼굴에는 초췌한 기색이 드러나 보이고, 수프를 입으로 가져갈 때 그의 손은 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식욕이 없는 듯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무심하게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중략)...‘사람 백정’의 구부정한 등허리나 납을 먹인 것같은 얼굴을 보면 볼수록 일리니치나는 뭔가 내면적인 벌의 악함과 어색한 기분을 더욱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자 문득 그녀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미워하고도 납을 인간에 대해서 호감 때문은 아닌 연민의 정이 참으로 강렬한, 여자까지도 정복하고야마는 그 고통같은 모성적인 연민의 정이 일리니치나의 마음 속에 싹텄다. 이 새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우유를 가득 따른 그릇을 미시카에게 주며 말했다.

“자, 들게. 좀 많이! 자네는 하도 말라서 보기에든 기분나쁠 정도야.... 그런 사위는 원치 않네!”

<솔로호프 ‘고요한 돈강’ 8편>

먼 나라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 나라 작가들의 작품 중에도 이미 1960년대 초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이나 그 후 조정래가 써서 공전의 지가를 올린 <태백산맥>, 그리고 김원일, 김원우, 이문열의 작품들 중에도 분단문학, 혹은 통일 지향의 문학작품이라고 할 것들은 적잖다. 윤홍길의 <장마> 역시 칙칙한 장마기를 배경으로 하고 두 사돈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려 민족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필자는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을 읽으면서 코사크족들의 그 상황이 어찌면 그리도 우리와 방불할까, 몇번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니와 특히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에 있어서 그랬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인지 제주의 작가들도 1940년대 후반기에 주로 겪은 4.3사건을 소재로 그 동안 부단히 시와 소설들을 써왔다. 현길언, 현기영, 오경훈 등과 고시홍, 김석희, 한림화 등 직간접으로 이 사건을 겪은 작가들이 4.3을 소재로 작품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작품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편 분단문학이면서 통일 지향 문학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설사 이들 작품들이 드러내어 외치고 있지는 않다해도 분단의 아픔을 내용으로 앓고 있으며 속으로는 안타깝게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령 고시홍의 단편 <저승문>은 '이십칠 년인가 이십팔 년만에 한층의 재로 귀국한' 화자 아내의 백부 유골을 집안에 들이는 문제가 화소가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금기의 풍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끄트리는 그 금기사항을 깨는 '허물기'로 끝맺고 있다. 마치 분단 극복의 상징처럼.

...국적 불명의 사나이가 초상화를 안고 숙부네 집 울타리의 바깥 돌담계로 돌아갔다. 돌담 옆에는 장정 대엿 명이 모여 서 있었다.

"담 허물라!"

"담 허물자!"

노인의 우렁찬 육성이 분출하는 순간 돌담 옆에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은 일시에 외치면서 웃놀이판이 벌어진 마당 구석의 돌담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고시홍의 '저승문' 끝부분〉

그러나 지역적 여건 탓인지 아직까지 도내 작가들 중에는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를 소재로 삼아 작품에 접근한 경우가 없는 듯하다. 아니, 어디에 있어도 필자가 과문한 탓으로 그것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 발표의 지면도 너무 많아졌고, 작가의 수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필자가 면구스럽게도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통일 지향 문학> 어찌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기도 하지만 한편 너무 급박하게 주제에 접근토록 조치한 주최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대로 이 기간에 김수열의 통일 염원의 시 <우리더러 하나되라 하네>와 '광대시인 김경훈'의 결혼 축가로 지어 불러준 <결혼은 통일> 두 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수확이었다. 그 한편을 다음에 전제한다.

굽이치는 저 물결이 전하네
산자락을 휘감아 흐르는 바람이

큰 울림으로 전하네
 하나되라 하네
 사랑으로 하나되라 하네
 우리의 땀줄을 살라 묻고
 마침내 흠이 되어 돌아갈 바로 여기
 다시는 갈라서지 말자
 이미 등 돌린 자 있으면
 서로의 아픔을 혀로 핥으며
 이제라도 함께 가자
 그래서 큰 하나가 되자 하네
 저 혼자 앞서가는 동지 있으면
 온몸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듬어 세워
 저 산 넘으라 하네
 하나되어 저 바다 건너라 하네
 남도의 끝 서귀포에서
 샛노란 유채꽃망을 터뜨린 남녘바람이
 허리 잘린 철책선 쇠붙이 녹이고
 영변 약산 진달래 같은 아이들과 손잡고
 백두산 두매산골
 어느 협동농장 일꾼들과 한데 어우러져
 구성진 해방춤 굿거리 장단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멋들어지게 부를 그 날까지
 칠패도 하나되라 하네
 들췌도 하나되라 하네
 끝내 하나되라 하네
 우리더러 사랑으로 하나되라 하네

〈김수열의 '우리더러 하나되라 하네' 전연〉

3. 통일 염원 나의 작품들의 배경

분단이나 통일을 주제나 소재로 삼은 나의 작품들을 찾아보니까 1992년에 출간한 세대풍자 소설집 〈그 짝글래기의 유품〉에 수록된 단편 〈꿀 따러 가세〉와 1989년에 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록된 〈나비로의 환생〉과 〈보춘화 한 뿌리〉가 그 부류에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잡지의 청탁으로 매수 제한 때문에 가볍게 접근한 것으로 기억되는 〈꿀 따러 가세〉는

실지로 의도동의 그의 집에서 백두산 기슭까지 꿀을 따러 갔었고, <12개월 양봉법>이라는 책을 손수 쓰기도 했던 김정점(金鼎点, 당시 73세)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집필 동기가 됐다. 물론 특이한 소재인 만큼 주인공의 이름도 실명을 차용했다.

그 동안 남북의 싸움은 노인이 보기에는 억지 센 아이들 <땅 따먹기>놀이 한가지였다. 서로 자기가 약간만 밀치고 양보를 해버리면 간단히 끝날 일을 가지고 양쪽은 자기 고집만 세우며 밀치락당기락하는 꼴이었다. 그런 통에 애매한 백성들만 죽어라고 당하고 있었다. 노인은 해방 이전 남북이 갈리기 전에 열차에 벌통을 싣고 백두산 기슭까지 꿀을 따러 갔던 일을 회상해 냈다. 그 때야 똥똥했지! 어느 해엔가는 꿀을 어떻게나 지천으로 땀던 지 받아 놓을 용기가 없어서 애먹은 기억도 있었다.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는 노인은 88올림픽에 북한의 선수들이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북한에서는 올림픽에 온다냐 어찌냐?” 만나기만 하면 아들에게도 묻는 게 일이다. <12개월 양봉법>은 경험에 의해서 쓴 책이므로 그에게는 어느 책보다도 신뢰가 간다.

노인은 1,2월 동한기 내용을 건어내고 3월 초부터 읽어 내려간다.

“양봉의 취미는 이때로부터 점신되는 양춘 삼월 호시절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하는 초기에는 봉군(蜂群)이 심향월장(深香越牆)하며 활기 잇게 분비(奔飛)하며 화분과 술을 운반하여 오는 광경을 구경할 때 그야말로 청춘남녀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묘관(妙觀)이 안전에 버려진다”

이상의 부분은 <...양봉법>의 한 대목을 비교적 그대로 옮겨본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이 무렵에 서귀포 쪽 바닷가 벼랑과 논밭에 이른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부근 양지쪽에 벌통을 내어놓으면 겨울 동안 설탕을 타 먹이던 양식은 해결된다. 4월 7일, 광주, 담양, 장성에 벚꽃이 핀다. 벌은 자연 꽃을 따라 가게 마련. 자운영의 개화기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삼으나 춥고 더운 지방에 따라 4~5일의 차이가 있다. 6월에는 경기 의정부 부근에 아까시아나 밤나무 꽃이 피고, 전라도 구례, 곡성 지방에는 감나무꽃이 핀다. 7~8월 우기를 잘 넘기면 9월 하순까지는 평북 강개의 고산지대에만 있는 싸리와 비나무꽃의 차례이다. 이 무렵부터 평양 중화읍 부근에는 매밀꽃이 핀다.

미리 봐왔던 대로 그 해 중화읍의 매밀꽃은 푸졌다. 벌들은 자리를 잡자 벌통을 떠났다가 이내 온몸에 꿀을 묻힌 무거운 몸으로 내려앉았다. 열흘 남짓에 3회의 꿀을 따니까 벌통 하나에 꿀 한 말씩 백 말이었다. 꿀 담을 통이 없어 나무통을 빌고 역 창고를 빈 것이 그 해였다. ...이 때야 강개뿐 아니라 백두산, 압록강, 어디라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별이 꽃을 따라 다니듯 남자들은 가는 곳마다 여자를 찾게 마련이었으므로 자연스레 여자에 얽힌 로맨스들도 빚어졌다. 유독 그에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건 허리 가는 평양기생에 얽힌 기억. 이런 매력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88 올림픽 개회식 날 과거 양봉의 한 동아리였고 그 아들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어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서울 이 노인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입장표를 사두게 했다가 함께 대회 현장으로 출발했으나 마침 택시의 핑크로 개회식에 지각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통일이 우리에게 이리 더딘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은 아쉽게 끝나고 있다.

“못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우두망찰 썼는데 덩 덩, 벽 안에서 용고(龍鼓)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 노인이 하늘을 우러르는데 아이들이 내버린 풍선 두 개가 키재기를 하듯 하늘로 떠가고 있었다. 그 풍선들을 보면서 김 노인은 문득 여왕벌의 교미를 떠올리고 있었다.

〈꿀 따라 가세〉의 끝 대목

‘다시 쓰는 사기(史記).1’이라는 부제가 붙은 증편소설 〈나비로의 환생〉은 〈현대문학〉에 전제가 된 후 1989년 4월 실천문학의 소설(16)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라는 다소 선동적인 제목의 연작 증편집에 실려졌다. 이 책에는 앞의 작품 외에 여기서 거론하려는 〈보춘화 한 뿌리〉와 〈바람의 늪〉, 〈한라구절초〉와 표제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5편의 증편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4.3에 직접 관계가 된 인물이거나 4.3이 소재가 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은 당초 〈어느 공산주의자를 위한 보고서〉였던 것이 출판 과정에 바뀐 것이며, 1996년 일본글로 번역이 될 때에는 원제목으로 환원했음을 밝힌다.

〈나비로의 환생〉은 “나의 소년기의 시초는 공포로 시작했으며, 청년기의 시초는 복수로 일관했다.”는 고백의 나레이터인 한 검사 가족의 이야기이다. 그의 아버지는 6.25에 동네 인민위원회에 끌려가서 두름으로 결박당해 바가지라는 별명의 동네 하인에게 총 맞아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 소년시절에 따라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검사는 평생 이 때의 기억을 환영으로 지니고 살아간다. 그는 복수를 위한 모진 결의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검사가 되어 제주로 발령이 나서 착임한다. 그와 나중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된 그의 동생은 학창시절 고향에 돌아오면 마을에서 술한 사람을 살륙하고 후퇴하는 공산군을 따라간 후 소식이 없는 바가지의 아들, 그들 또래의 순보에게 몰매를 때리는 것을 연쇄행사로 삼곤 했다. 그런데 그가 검사가 되어서 은사의 딸을 맞아 결혼을 하고 첫딸을 낳은 해 추석 때 고향엘 내려 가니까 6.25 때 죽은 아버지의 무덤을 누가 벌초를 해둔 것이었다. 이럴 수는 없다. 누가 이러는지 밝혀야 된다. 그들은 여러 해 별려서 범인을 찾아내었는데, 그가 바가지의 아들 순보임을 알고는 또 한차례 모듬매를 때리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된다.

그런데 제주지검에 착임한 그에게 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사건은 제2라운드로 들어간다. 서북청년으로 제주에 와서 취조 중에 이곳 여자를 강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섬에 주저앉은 배영길이란 자가 5.16 이후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망

한 것이다. 그는 노련한 현지 경찰 형사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 4.3의 전모를 알게 되고, 6.25와 4.3이 한꺼번에 겪어 있는 민족의 비극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기독교에 귀의한 그의 모친은 고향에서 남편을 죽인 바가지의 아들 순보를 용서하고, 며느리인 검사의 아내까지도 감화시켜 과수원 한 다랑이까지 사준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다. 소설의 결말은 이렇게 나고 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어깨 너머로 그녀(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게 있었다.

“...농사일, 잡일... 그는 당신보다도 훨씬 어머님을 잘 모셔왔다는 거예요. 꾸짖지 마세요. ...사실은 ...작년... 그 동안 저축했던 돈을 꺼내 효부 노릇 한 번 했어요. ...자그만 과수원을 하나 ...사줬거든요...”

아내는 내게 ‘그에게’라는 말은 생략했다.

그리고 가슴이 더 내 등을 눌러왔다. 머릿발에 와서 칙칙한 게 떨어졌다.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만 사람들이 사상이 다른, 대륙의 동족들에게 풍선에 선물을 달아 띄워 보냈다는 기사를 읽고 가슴이 전류에 닿았을 때처럼 찌르르했었다. (중략)

그 사내가 내 아파트에서 함께 자던 날 밤, 나는 또 그 비람을 꿈꿨다. 그 꿈은 희한하게도 천연색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비람을 굴러 떨어지던 그 시래기 위음 같은 사람들이 흰 나비 푸른 나비로 변해서는 비람 주위를 현란하게 되날아오르던 것이었다. 그것들 속에는 아버지의 엄숙한 얼굴도, 바가지도, 매맞아 죽었다는 서북청년 배영길도, 윤간당한 소녀의 얼굴도 마냥 웃으며 비누 거품처럼 날아오르고 있었다.

〈나비로의 환생〉 마지막 대목

〈보춘화 한 뿌리〉는 진압군 사령관으로 제주에 왔다가 이제는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전역해 있는 한 장군을 아버지가 폭도로 몰려 수장 당하고 그 후 술한 역경 끝에 기자가 된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과, 진압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학살극을 추적해가는 이야기이다. 수장당한 아버지의 헛묘를 지키고 있는 화자는 어느날 그의 아버지가 수장당할 당시에 진압군의 사령관이었던 퇴역 장군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여행사 간부의 소개로 명동성당 앞의 한 호텔방을 빌어 장군을 만난 기자는 그러나 당시 제주도의 ‘진압’을 공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장군과 부단히 충돌한다. 이렇게 4일간의 허망한 인터뷰가 끝나고 데모 군중 때문에 뒷문을 통해서 돌아갈 때 장군은 미리 갖다가 프런트에 맡겨뒀던 종이에 쓴 보춘화 포기를 찾아서 갖고 간다.

호텔비를 치르고 남은 돈 얼마를 고문과 호헌 철폐를 부르짖으며 싸우는 성당 안의 데모대에게 “아우들아, 힘껏 싸워라! 역사와 시대 앞에 부끄럽지 말아라!”는 메모와 함께 손수건에 싸서 던져주고 고향으로 내려온 기자는 장군이 말하던 측후소 옆의 공적비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 비는 이미 깨어져 조각들만 흩어져 뒹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서 건널목 하나를 건느니까 시장이었다. 그 시장 입구에 행상 할머니들이 줄줄이 앉아 바구니에 담아온 채소 등숙을 팔고 있었다. 그녀들 가운데 유독 수건을 눌러쓴 할머니가 보춘화 무더기를 보자기로 가리우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아, 눈 속에서 봄의 소식을 알린다는 보춘화, 내 발길이 그 앞에서 뚝 멎어졌다.

“할머니, 이 꽃 한 뿌리에 얼마지요?”

나는 호텔 프런트에 장군이 맡겨왔던 비슷한 꽃을 떠올리며 물었다.(중략)

내친 김에 우체국으로 가서 그 풀을 소포로 포장했다. 사연을 쓸까 하다가 그만 두기로 했다. ...장군은 이 뜻을 읽을 수 있을까.

나는 이 풀이 이역에서도 꽃이 피어주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다.

〈보춘화 한 뿌리〉 마지막 대목

나는 이 소설의 취재를 위해서 사실로 서울로 올라가 명동의 로얄호텔에 여러 날을 묵으면서 장군을 만났다. 따라서 이 소설에는 사실적인 대목들이 꽤 있다. 이 두 편의 증편소설 고티리에서 어설프나마 용서와 화해를 시도해봤다. 그것도 종교의 차원을 끄당겨 와서. 3년 1개월간 계속된 6.25에 쌍방에서 약 150만 명이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아직도 그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3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4,3의 피해와 상처를 아몰릴 길은 무엇인가? 필자 나름의 고민을 해본 것이다.

4. 결 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제 거의 반 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자본주의 남한은 IMF의 시련을 겪고 있고, 사회주의 북한은 하루에도 술한 인명이 무위로 죽어가는 흑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모든 국민은 6.25 이후 반 세기도 안되어 다시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시련이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통일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이며, 지상의 명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국토와 국력의 회복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정학적, 풍수지리적 숨통을 트는 의미에서도 필수적이다. 이 일에 국민을 유도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갈 방법이 무엇일까? 그 일단의 역할을 나는 문학작품에 기대해보는 것이며, 국토의 남쪽 끝 이 지역의 작가들도 그 책무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